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Family Life Issues of Poor Female Earners After Korean Economic Crisi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옥선화
강사 성미애
박사과정 허정원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Professor : Ok, Sun Wha

Instructor : Sung, Miai

Doctoral Course : Huh, Jungwon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연구문제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oor female-headed families' family life events on their well-being under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to investigate how they overcome their alienation.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 (1) How are poor female earner's life satisfaction level and alienation level after economic crisis? (2) How are poor female earner's demands for social security?

For this empirical analysi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59 poor female-earners whose first child was of school ag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the 14th Feb. to the 18th Mar. 2000. The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dealt with demographic information, alienation,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life event.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project were as follows:

First, poor female-earners' alienation level was not higher than the average level. However among sub

* 이 논문은 1999년도 두뇌한국21 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이 연구는 1차년도 연구인 '빈곤가족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청소년, 여성가장의 소외문제와 대안가족의 모색'의 일 부임.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연구목적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www.snu.ac.kr) BK21에 제시되어 있음.

areas of alienation, powerlessness was higher than the average level. Second, poor female-earner made a strong claim for social welfare. Especially, they desired so much to be granted the national economic assistance.

주제어(Key Words): 빈곤여성가장(poor female earners), 생활실태(family life issues), 경제위기(Korean economics crisis)

I. 문제 제기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빈곤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오늘날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수준의 빈곤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빈곤 가족은 가족 내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망 등 가족외적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가족문제의 발생률이 다른 가족에 비하여 높은 실정이다. 즉 빈곤 가족에서는 이혼, 별거, 가족구성원의 유기, 가출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가족의 구조적 해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가족내 인간관계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정서적 해체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빈곤 가족 내에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족이 여성가장 가족이다. 비록 모든 여성가장 가족이 빈곤 가족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나 임금구조로 볼 때, 대다수의 여성가장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즉 취업구조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승진의 기회나 복지 혜택이 제한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여성가장 가족의 실태를 살펴본 연구들(김정자, 1984, 김정자, 1989; 공세권, 조애자, 1995 등)에 따르면, 여성가장은 대체로 실직율이 높으며, 취업 중인 경우에도 대부분 단순노무직, 행상, 하위서비스직, 생산직, 자영서비스직 등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 수준에 있어서도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0% 미만에 불과하다(통계청, 1995).

따라서 IMF 금융관리체제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조정등의 상황은 여성가장 가족에게 더 큰 위협

이 될 수 있다. 실제 여성가장은 남성가장과 똑같이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인데도 정부대책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은 물론, 구직 현장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와 연령,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3중(重)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한국일보, 1998년 8월 28일자).

또한 우리 사회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정이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결손된 상태인 여성가장가족은 경제적인 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소외감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IMF 금융관리체제에서 야기된 사회전반적인 위기는 다른 어떤 형태의 가족보다 이전부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생활해 온 빈곤 여성가장 가족에게 더욱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IMF 금융관리체제하의 경제적 위기시기에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생활실태를 알아보고, 이들이 갖는 생활만족도와 소외감 수준 및 복지제도 요구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위기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여성가장 가족의 복지제도 요구실태를 기초로 하여 빈곤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보호의 복지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문제

이 연구는 IMF 금융관리체제 이후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생활실태를 알아보고 이들의 갖는 생활만족도와 소외감 수준 및 이들이 요구하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경제위기 이후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경제위기 이후 빈곤 여성가장이 보이는 생활만족도 및 소외 감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빈곤 여성가장의 복지제도 요구 실태는 무엇인가?

지 실시되었는데, 조사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소재한 [일하는 여성의 집] 교육생,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입주자, 종합병원, 노동자 회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소개한 자 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직접 조사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질문지 응답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359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빈곤층 여성가장으로,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첫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로, 단순노무직, 판매·영업·서비스직, 단순기능직, 수입이 불규칙한 부업, 공공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로 구직 중인 여성가장으로 한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1) 탐색조사

본조사에 앞서 2000년 1월24일부터 1월 28일까지 탐색조사를 실시하였다. 빈곤 여성가장 4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직업생활 및 복지대책에 관한 내용을 개방형 질문지로 살펴보았다. 이 자료를 참고로 예비조사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2)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00년 2월 7일부터 2000년 2월 11일까지 빈곤 여성가장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자료를 토대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문항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3) 본조사

본조사는 2000년 2월 14일부터 2000년 3월 18일까

3. 측정도구의 구성

1) 소외감 척도

소외감 척도는 다양한 측면의 소외 개념을 볼 수 있는 Dean(1961)의 소외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무력감 9문항, 규범 상실감 6문항, 사회적 고립감 9문항 등 총 24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가능한 점수범위는 24점에서부터 1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다.

2) 가족생활사건 척도

가족생활사건 척도는 McCubbin, Patterson과 Wilson(1981)이 작성한 가족생활사건 척도(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FILE) 중 빈곤 여성가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가족생활사건 척도는 규범적 생활사건 문항, 비규범적 생활사건 문항, 가족 내 긴장 문항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년 동안 해당 가족생활사건의 발생 여부로 '그렇다' 1점, '아니다' 0점으로 응답하여, 응답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에서부터 3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빈곤여성가장이 겪었던 가족생활사건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3)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척도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Olson과 McCubbin(1982)이 개발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평가 척도(FACES :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FACES 척도는 I부터 IV까지 개발되었는데, Olson과 McCubbin

은 FACES IV는 2000년 6월에서야 척도유용성이 검증되고, FACES III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FACES II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ACES II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척도는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 각각 8문항씩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늘 그러는 편이다' 5점까지 주어진다. 응답가능한 점수범위는 8점부터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 및 적응성 수준이 높다.

4) 우울감 척도

우울감 척도는 John's Hopkins 대학팀(Derogatis et al., 1974)이 개발한 증후군(SCL-90-R)척도를 김광일·김재환·원호택(1984) 등이 수정·번안한 척도 중 우울감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감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다' 1점에서부터 '매우 심하다' 5점까지 주어진다. 응답가능한 점수범위는 11점에서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하다.

5) 자녀관 척도

자녀관 척도는 Fawcett, Albores와 Arnold(1972)가 자녀로부터 얻는 보상과 비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녀관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보상적 자녀관 척도는 하위영역별로 존재적 보상 2문항, 정서적 보상 1문항, 부모 개인의 성숙에 미치는 보상 2문항, 결혼의 의미에 미치는 보상 1문항으로 총 6문항의 5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응답가능한 점수범위는 6점에서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보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비용적 자녀관 척도는 하위영역별로 신체적 비용 1문항, 행동제약의 비용 3문항, 부부관계에 미치는 비용 1문항, 경제적 비용 1문항의 총 6문항의 5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응답가능한 점수범위는 6점에서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비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6) 직업역할 보상·비용 척도

직업역할 보상·비용 척도는 중년 여성의 직업역

할에 대한 연구들(김명자, 1989; Amatea 등, 1986; Baruch & Barnett, 1986)에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직업역할 보상은 총 5문항, 직업역할 비용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직업역할 보상 척도의 응답가능한 점수범위는 5점에서부터 25점까지, 직업역할 비용 척도는 7점에서부터 35점까지로,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역할을 보상으로 생각하는 수준 및 비용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높은 것이다.

7) 생활만족도 척도

생활만족도 척도는 자신의 현재 삶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가 구성한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응답자 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나 평가를 알아보는 12문항으로,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내용을 대립되게 제시하였다. 응답 점수의 범위는 12점에서부터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이다.

4.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가족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4인이 그 내용을 검증한 후 구성된 것으로, 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소외감 척도는 .82, 가족의 응집성 척도는 .78, 가족의 적응성 척도는 .82, 우울감 척도는 .92, 보상적 자녀관 척도는 .72, 비용적 자녀관 척도는 .55, 직업역할 보상 척도는 .59, 직업역할 비용 척도는 .77, 생활만족도 척도는 .9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5. 자료의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처리하였는데,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및 소외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구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Cronbach' α)를 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과반수가 40대로 55.7%이었으며, 30대가 41.2%, 50대가 2.8%, 20대가 0.3%으로 평균 연령은 40.6세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과반수인 58.7%이었으며, 중졸이 23.8%이었다. 종교는 기독교를 믿는 경우가 가장 많아 47.3%를 차지하였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26.1%, 불교 11.6%, 천주교 10.5%이었다. 종교가 있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57.1%는 종교예식 및 다른 활동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종교예식에는 꼭 참석한다고 응답하여 종교가 있는 빈곤 여성가장들은 종교활동에 적극적인 편이다. 직업은 판매·영업·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22.4%, 수입이 불규칙한 부업을 하는 경우가 22.2%,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16.3%,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7.3%,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6.4%,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8.5%, 그리고 현재 구직 중이거나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가 10.5%이었다. 일을 시작한 시기는 IMF 금융관리체제 이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경우가 73.5%로 상당수가 우리가 경제위기를 맞이 이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다. IMF 금융관리체제 이후인 1998년 이후에 시작한 경우가 26.6%이었으며, 일을 한 평균 기간은 약 7년이었다.

결혼지위는 이혼인 경우가 28.1%, 사별인 경우가 21.4%, 남편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별거, 유기등의 경우가 과반수인 50.4%였다. 그리고 현재 이혼자나 사별자를 중심으로 재혼할 의사를 물어본 결과, 절대다수인 78.9%는 재혼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 39.7%는 '자녀의 장래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결혼생활에 미련이 없어서'가 29.1%, '지금 이 상태가 편해서'가 19.6%등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를 가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당한 대상이 없어서', '친정식구가 반대해서', '자녀가 반대해서' 및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재혼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도 약간 있어서 각각 5.6%, 0.3%, 1.7%, 1.1%를 차지하였다. 현재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보통 수준의 건강상태라고 응답한 경우가 45.5%,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병이 찾아서 일을 하기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7.1%, 8.7%를 차지하였다.

여성가장 가족의 월수입은 과반수인 54.6%가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30.9%는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는 등 전체 근로자의 평균 월수입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고, 평균 월수입은 63만원이었다. 동산 보유 수준은 과반수인 63.1%가 '없다'고 밝혔으며, 평균 보유 동산액은 446만원이었다. 부동산의 경우, 16.7%가 '없다'고 밝혔고, 평균 보유 부동산액¹⁾은 1,994만원이었다. 부채 수준은 과반수인 57.7%는 '없다'고 밝혔으나 1억 이상의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8%를 차지하였고, 평균 부채액은 940만원이었다(부록 1 참조).

2.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1) 빈곤 여성가장의 개인생활

여성가장이 된 주된 이유는 남편과의 이혼(26.1%)이나 사별(20.7%)로 인한 것이나, IMF 금융관리체제라는 경제적인 위기로 남편이 실직하거나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지면서 여성가장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14.4%, 18.7%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평균 약 7년동안 일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가장이 된 뒤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반수인 59.9%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었고, 21.9%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밝힌 사람도 8.5%를 차지하였다.

주로 대화하는 상대가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가 2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친정 형제자매와 자녀

1) 보유 부동산액수에는 전, 월세 보증금이 포함되었음.

및 남편의 순서로, 각각 19.7%, 16.1%, 11.8%를 차지하였다. 반면 시가 형제자매를 뽑은 응답자는 1.1%에 불과하였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59.9%에 해당되는 과반수가 '많이 나아질 것이다'와 '나아질 것이다'에 응답을 하였으나 심리적인 건강지수인 우울감 수준을 살펴본 결과, 보통 수준 이상(최도의 범위: 11-55점/평균값: 34.60점, 표준편차: 8.71점)으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하다'(평균값: 3.64점, 표준편차: .97점), '매사에 걱정이 많다'(평균값: 3.63점, 표준편차: .99점) 등의 문항에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처럼 빈곤 여성가장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 및 교육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낙관을 하지만, 인생의 발달주기 및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빈곤 여성가장의 가족생활

빈곤 여성가장의 84.9%가 '본인의 수입'으로 생활하며, 부차적으로 25.3%는 '친정쪽의 도움', 22.8%는 '생활보조 수단'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로는 31.7%가 '자녀의 사교육비'라고 응답하였고, 19.6%는 주거비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른 계층에 비해서 비교적 공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가족이지만 '공교육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도 17.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인 59.0%가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밝힌 것을 볼 때, 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절대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도 겪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주거형태는 절대다수인 80.3%가 전세, 월세 및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0.0%에 불과하였다. 친척집이나 복지시설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6.1%, 2.2%를 차지하였다.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49.2%가 '이웃의 환경이 나와 비슷해서 편하다'고 응답하였으나 30.6%는 '자녀를 위해서 이사가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빈부차이가 느껴진다'고 응답한 경우도 16.3%를 차지하였다.

가족형태는 여성가장 본인과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과반수로 59.1%를 차지하였고, 남편과 미혼자녀와 함께 핵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34.3%, 친정 부모나 친정형제자매 등 친정쪽 가족과 미혼자녀와 함께 지내는 경우가 6.3%, 그리고 시부모를 모시면서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0.3%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위탁한 경험을 물어본 결과, 81.5%는 '없다'고 응답하였고, 18.5%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47.3%는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중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아동이 33%로 나타나 자녀보호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5.4%는 친정어머니에게 자녀를 위탁한다고 응답하였고, 남편과 이웃이 각각 11.2%, 9.0%를 차지하였다. 또한 여성가장이 된 후 살림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없다'가 19.3%이었는데, 이들의 50%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나 친정형제자매가 살림을 도와주는 경우는 각각 27.4%, 21.1%를 차지하였다. 여성가장이 된 후 의지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친정 식구를 1순위로 꼽는 경우가 35.7%가 되는 것을 볼 때, 보다 의례적인 관계가 되기 쉬운 시가 식구보다는 친정 식구를 중심으로 지원망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가정생활에서 남편(8.7%)과 자녀(8.4%)가 비슷하게 살림을 도와준다고 하며, 의지의 대상으로는 남편(9.5%)보다 자녀(15.6%)를 꼽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을 볼 때, 자녀의 존재가 여성가장에게는 중요한 지지원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앙이 큰 의지가 된다고 응답한 경우도 20.9%를 차지하였다.

여성가장에게는 중요한 지지원이 되는 자녀와 하루 평균 대화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거의 반수인 45.0%는 30분에서 1시간 이내라고 응답하였고,

29.1%는 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하는 등 대체로 자녀와의 대화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와의 대화 후 갖는 기분은, '대화를 한 뒤 속이 시원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4.4%, '마음 속 이야기를 충분히 못한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가 44.9%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대화의 질에 대해서는 거의 반수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나와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도 6.7%였다.

빈곤 여성가장이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빈곤 여성가장은 자녀를 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척도의 범위: 6-30점/평균값: 23.04점, 표준편차: 4.59점), 또한 비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척도의 범위: 6-30점/평균값: 20.16점, 표준편차: 3.62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내 삶의 보람이 된다'(평균값: 4.20점, 표준편차: .75점), '사람들은 자녀를 키움으로써 인생의 참뜻을 알게 된다'(평균값: 4.14점, 표준편차: .79점), '자녀가 없으면 생활의 재미가 별로 없다'(평균값: 3.92점, 표준편차: .93점), '자녀는 인생의 성공에 큰 자극이 된다'(평균값: 3.89점, 표준편차: .89점),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결혼의 의미가 풍부해진다'(평균값: 3.72점, 표준편차: .94점) 등 자녀가 결혼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갖는 존재적 의미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있어서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평균값: 4.11점, 표준편차: 1.64점), '자녀를 키우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평균값: 4.05점, 표준편차: .79점) 등의 문항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응집성 수준(척도의 범위: 7-35점/평균값: 29.02점, 표준편차: 4.36점)을 보였다. 특히 '우리 식구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평균값: 3.93점, 표준편차: .82점), '우리 집은 식구들이 내린 결정을 잘 따른다'(평균값: 3.60점, 표준편차: .72점), '우리 식구들은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한다'(평균값:

3.55점, 표준편차: .88점) 등의 문항에 대해서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경우 보통 수준의 적응성 수준(척도의 범위: 9-45점/평균값: 27.77점, 표준편차: 4.99점)을 보였으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식구는 해결방법을 함께 의논한다'(평균값: 3.64점, 표준편차: .89점), '우리 식구는 자기 생각을 쉽게 서로에게 이야기 한다'(평균값: 3.64점, 표준편차: .84점) 등의 문항에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는 다른 일반 가족과 마찬가지로 가족내 응집성이나 적응성 수준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친정 식구 및 자녀가 중요한 지지원이 되는데, 특히 자녀의 존재는 삶의 목표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빈곤 여성가장의 직업생활

빈곤 여성가장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본인의 직업이 개인 및 가족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현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의 반수인 47.7%가 '본인의 안정적인 취업'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부의 복지 지원'(21.1%)을 꼽았다. 그리고 이들에게 직업 역할은 보통 수준 이상의 보상을 가져다주며(척도의 범위: 5-25점/평균값: 16.73점, 표준편차: 2.71점), 또한 보통 수준 이상의 비용을 느끼게 하는 것(척도의 범위: 7-35점/평균값: 23.47점, 표준편차: 4.59점)으로 나타났다. 직업역할에서 받는 가장 큰 보상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평균값: 3.80점, 표준편차: .71점),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평균값: 3.60점, 표준편차: .84점), '내 일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니 자부심이 생긴다'(평균값: 3.58점, 표준편차: 1.02점) 등 직업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지지원이 되며, 숙달감 및 자부심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모아둔 돈은 없는데 나이만 들어가니 불안하다' (평균값: 4.31점, 표준편차: .87점), '일 때문에 바빠서 친구를 만나는 등의 다른 일을 통 할 수가 없다' (평균값: 3.53점, 표준편차: 1.00점), '일의 양에 비하여 쉬는 시간이 부족하다' (평균값: 3.38점, 표준편차: .99점) 등의 문항에 대해서 보통 수준 이상의 비용적인 측면을 표출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이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직업역할의 비용은 이들의 불안정한 직종과 직업지위에서 오는 비용들이었다.

이처럼 빈곤 여성가장의 경우 직업을 현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책으로 보며, 직업 역할에서 보통 수준 이상의 보상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이들이 갖는 직업의 불안정성, 저소득으로 인해 직업 역할에서 경험하는 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빈곤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경험

빈곤 여성가장이 지난 1년간 경험한 가족생활사건 수준은 35건 중 11.8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반수가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족생활사건을 빈도 순서로 보면,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에 영향을 받았다',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었다', '의·식·주에 드는 비용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어려웠다', '집안 청소, 공과금 납부 등 해야 할 집안 일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아졌다', '식구 중 직장이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사람이 있다', '빚을 지거나 대출을 받았다', '병원비가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다' 순서였다. 이와 같은 지난 1년간 경험한 가족생활사건을 보면 빈곤 여성가장들은 지난 1년동안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경제사건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제시된 전체 9가지의 경제적 사건 중 7가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즉 '꼭 구입해야 할 물건을 사는 것을 미루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았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각종 요금을 제 때 내지 못하거나 그럴 뻔했다',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했다', '돈 때문에 식구끼리 다투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었다',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돈을 꾸었다' 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IMF 금융위기관리체제 상황이었지만, 빈곤 여성가장들에게는 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가져다 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IMF 금융위기관리체제 이후 전반적인 생활변화에 대해서 과반수인 50.3%가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고, 28.5%는 '생활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응답하는 등 빈곤층 여성가장 가족의 경우 다른 어떤 가족보다 IMF 금융위기관리체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IMF 금융위기관리체제 이후 구체적인 생활변화를 살펴본 결과, 생활수준이 나빠지고, 자녀의 사교육을 중단하게 된 경우가 높았다. 즉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생활수준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26.7%, '자녀의 사교육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5%였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IMF 금융관리체제의 위기상황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 현재에도 '경제가 IMF 금융관리체제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는 2.5%에 불과하였으며, 29.8%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과반수인 67.4%는 '부자와 빈자간 격차가 커지는 것 같다' 등 과반수는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경제회복 과정을 경제적 불평등 과정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소외감 수준

빈곤 여성가장이 경험한 생활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보통 수준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척도의 범위: 12-60점/평균값: 36.48점, 표준편차: 9.88점). 특히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가치있는 존재로 보며(평균값: 3.55점, 표준편차: .97점), 삶이 구속되어 있다기 보다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평균값: 3.40점, 표준편차: 1.13점), 전반적인 삶을 실망스럽게 보기보다는 보람있는 것으로

보았고(평균값: 3.17점, 표준편차: 1.10점),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평균값: 3.13점, 표준편차: 1.04점).

그러나 전반적인 생활이 편안하기보다는 고되다고 응답하였고(평균값: 2.61점, 표준편차: 1.09점), 성공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고 보기보다는 성공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각하고 있으며(평균값: 2.77점, 표준편차: 1.14점),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보였다(평균값: 2.87점, 표준편차: 1.10점).

빈곤 여성가장이 느끼는 소외감 수준은 높지 않았다(척도의 범위: 16-80점/평균값: 44.01점, 표준편차: 8.08점).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이 의미하는 바를 고려해 볼 때 예상할 수 있듯이, 소외감의 하위영역 중 무력감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 이상의 소외감을 보였다(무력감 - 척도의 범위: 6-30점/평균값: 18.20점, 표준편차: 4.41점, 규범상실감 - 척도의 범위: 5-25점/평균값: 12.20점, 표준편차: 2.97점, 사회적 고립감 - 척도의 범위: 5-25점/평균값: 13.61점, 표준편차: 2.69점). 특히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서 무력감 수준이 높았는데, '나는 아이들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가 걱정된다'(평균값: 3.76점, 표준편차: 1.07점)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 이상으로 소외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삶의 목표가 되지만, 이러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무력감, 나아가 소외감으로 다가옴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빈곤 여성가장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가치롭게 생각하며 보람된 생활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생활은 고되고,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빈곤 여성가장이 느끼는 소외감 수준은 높지 않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이 의미하는 바대로 무력감을 통해서 소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빈곤 여성가장의 복지제도 요구도

빈곤 여성가장의 경우 전반적인 복지제도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요구도를 보였다. 특히 '일하는 여

성을 위한 노후복지시설'(평균값: 4.63점, 표준편차: .62점),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진료'(평균값: 4.59점, 표준편차: .62점), '싼 이자의 조건 없는 주택자금 융자'(평균값: 4.58점, 표준편차: .82점), '일자리 소개'(평균값: 4.56점, 표준편차: .66점), '생활비 보조'(평균값: 4.51점, 표준편차: .68점), '의료비 보조'(평균값: 4.51점, 표준편차: .68점) 등의 문항에 대해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한편, '재혼을 위한 기회 제공'(평균값: 3.01점, 표준편차: 1.14점), '장보기 등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가정도우미'(평균값: 3.18점, 표준편차: 1.13점) 등의 문항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보이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빈곤 여성가장의 경우 현재의 생활수준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대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IMF 금융관리체제하의 경제적 위기 이후 빈곤 여성가장 가족이 살아가는 생활실태 및 이들이 갖는 생활만족도와 소외감 수준과 이들이 요구하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생활의 측면에서 빈곤 여성가장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 및 교육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낙관을 하지만, 인생의 발달주기 및 현재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빈곤 여성가장은 보통 수준 이상의 생활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생활은 고되고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롭게 생각하며 현재 자신의 생활에 보람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인 소외감 수준은 높지 않으나, 소외감의 하위영역 중 무력감이 높으며, 특히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 이상의 무력감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1/3 정도가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이며,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가 자녀양육 및 교육 부문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힌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둘째, 가족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 가족의 경우도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는 다른 일반 가족과 마찬가지로 가족 내 응집성이나 적응성 수준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들 가족의 경우 친정 식구 및 자녀가 중요한 지지원으로 작용하며, 특히 자녀의 존재는 삶의 목표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녀의 존재는 삶에 의의를 제공하는 보상적 측면과 부담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셋째, 빈곤 여성가장은 자신의 직업생활이 현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으로 보며, 직업역할에서 보통 수준 이상의 보상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직종상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령의 증가로 인한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보인다.

그리고 빈곤 여성가장은 지난 1년간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각에서는 IMF 금융관리체제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 현재를 부자와 빈자간 격차가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 과정으로 지각하고 있다.

넷째, 빈곤 여성가장은 전반적으로 복지제도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요구도를 보이는데, 특히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대책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인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IMF 금융관리체제 이후 전반적인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결과와 관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빈곤 여성가장의 직업활동 및 일상의 경제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본인의 안정적인 취업'이라고 보는 만큼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이들은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학령기 자녀의 공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 및 방과후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빈곤 여성가장은 자녀에 대하여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녀를 중요한 삶의 지지원으로 보며 삶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모-자녀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가족기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상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계층간 괴리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세권, 조애자(1995). *편부모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 서울: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 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김명자(1989). *중년기 연구*. 서울: 교문사.
- 김정자(1984).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자(1989).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일보(1998). 8월 28일자.
- Amatea, E., Cross, E. G., Clark, J. E., & Bobby, C. L. (1986). Assessing the work and family role expectations of career-oriented men and women: The life role salience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4), 831-838.
- Baruch, G. K., & Barnett, R. C. (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3), 578-585.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Y.:

Russel Sage Foundation.
 Dean, D. G. (1961). Alienation: Its meaning and measur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753-768.
 Fawcett, J., Albores, S., & Arnold, F. (1972). The value of children among ethnic groups in Hawaii: Exploratory measurement. In J. Fawcett(ed.), *The satisfaction and costs of children: Theories, concepts, methods*.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McCubbin, H. I., Patterson, J. I., & Wilson, L. R. (1981).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St. Paul,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Olson, D. H., & McCubbin, H. I. (1982).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Application to family stress and crisis intervention. In McCubbin et al.(eds.),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Springfield: Charles Thomas Publisher.

<부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실태

특 성	집 단	빈도(%)
연령	20대	1(0.3)
	30대	145(41.2)
	40대	196(55.7)
	50대	10(2.8)
	평균	40.58(세)
학력	무학	2(0.6)
	초졸	23(6.7)
	중졸	82(23.8)
	고졸	202(58.7)
	초대졸	10(2.9)
	대졸	24(7.0)
종교	기독교	167(47.3)
	천주교	37(10.5)
	불교	41(11.6)
	종교없음	92(26.1)
	기타	16(4.5)

특 성	집 단	빈도(%)
종교참여 시기	여성가장이 되기 전부터	134(68.5)
	여성가장 된 뒤 자발적 참여	30(11.8)
	여성가장 된 뒤 주위권유로	42(16.5)
	기타	8(3.2)
종교참여 수준	종교예식 및 다른 활동	54(20.8)
	종교예식에 꼭 참여	94(36.3)
	종교예식에 가끔 참여	81(31.3)
	종교예식에 거의 참여	24(9.3)
직업	종교예식에 거의 참여않음	6(2.3)
	판매·영업·서비스직	77(22.4)
	단순노무직	56(16.3)
	자영업	25(7.3)
	단순기능직	22(6.4)
	사무직	29(8.5)
	부업	76(22.2)
공공근로·구직 중	36(10.5)	
가장이 된 이유	기타	22(6.4)
	사별	73(20.7)
	이혼	92(26.1)
	별거	30(8.5)
	남편의 실직	51(14.4)
	남편의 무능력	66(18.7)
	남편의 질병	19(5.4)
	남편의 가출	15(4.2)
기타	7(2.0)	
일을 시작한 시기	80년도 이전	22(6.4)
	81~90년도이전	64(18.5)
	91~97년(IMF)이전	168(48.6)
	98년도 이후	92(26.6)
결혼 지위	평균 일한기간	약 7년
	이혼	101(28.1)
	사별	77(21.4)
	별거	51(14.2)
재혼의사	남편과 동거	130(36.2)
	재혼고려	39(17.1)
	재혼전제로 교체 중	9(3.9)
재혼하지 않는 이유	재혼계획없음	180(78.9)
	자녀의 장애때문	71(39.7)
	결혼생활에 미련이 없어서	52(29.1)
	지금 상태가 편해서	35(19.6)
	적당한 대상이 없어서	10(5.6)
	친정식구의 반대	1(0.3)
	자녀의 반대	3(1.7)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2(1.1)
기타	5(2.8)	

특 성	집 단	빈도(%)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7(2.0)
	건강하다	60(16.8)
	보통이다	163(45.5)
	좋지 않다	97(27.1)
	병이 잦아 일하기가 불편	32(8.7)
여성 가장이 된 뒤 어려운 점	경제적인 어려움	211(59.9)
	자녀양육 및 교육	77(21.9)
	직업의 불안정	30(8.5)
	본인의 건강	12(3.4)
	가족의 건강	2(0.6)
	주위의 편견	7(2.0)
	가정불화	4(1.1)
	자녀비행	3(0.9)
	주위사람과 멀어짐	4(1.1)
	직장업무	2(0.6)
개선방안	본인의 노력	67(19.4)
	본인의 안정적 취업	165(47.7)
	재혼	5(1.4)
	자녀의 출세	28(8.1)
	정부의 복지지원	73(21.1)
	기타	8(2.3)
전반적인 생활기대	많이 나아질 것이다	36(10.0)
	나아질 것이다	179(49.9)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114(31.8)
	나빠질 것이다	25(7.0)
	아주 나빠질 것이다	5(1.4)
월소득	50만원 미만	111(30.9)
	50~100만원미만	196(54.6)
	100~150만원미만	35(9.7)
	150~200만원미만	12(3.3)
	200만원 이상	5(1.4)
	평균	61만원
부동산	없음	53(16.7)
	500만원미만	58(18.3)
	500~1000만원미만	23(7.3)
	1000~2000만원미만	41(12.9)
	2000~3000만원미만	56(17.7)
	3000~5000만원미만	49(15.4)
	5000~1억원 미만	32(10.1)
평균	1,994(만원)	
동산	없음	200(63.1)
	100만원미만	10(3.2)
	100~ 500만원미만	39(12.3)
	500~1000만원미만	21(6.6)

특 성	집 단	빈도(%)
동산	1000~2000만원미만	22(6.9)
	2000~5000만원미만	18(5.7)
	5000만원이상	7(2.2)
	1억 이상	5(1.6)
	평균	446(만원)
주소득원	본인의 수입	303(84.9)
	시가쪽 도움	2(0.6)
	친정쪽 도움	10(2.8)
	생활보조수당	9(2.5)
	공공근로사업	18(5.0)
	직업훈련수당	10(2.8)
	이자수입	3(0.8)
	교우, 종교단체도움	1(0.3)
	기타	1 (0.3)
빚	없음	183(57.7)
	500만원미만	30(9.5)
	500~1000만원미만	25(8.0)
	1000~1500만원미만	26(8.2)
	1500~2000만원미만	9(2.8)
	2000~3000만원미만	18(5.7)
	3000~5000만원미만	12(3.8)
	5000~1억원미만	8(2.5)
	1억~2억원미만	3(0.9)
	2억원이상	3(0.9)
평균	940(만원)	
부소득원	본인의 수입	24(10.0)
	시가쪽 도움	25(10.4)
	친정쪽 도움	61(25.3)
	생활보조수당	55(22.8)
	공공근로사업	13(5.4)
	직업훈련수당	20(8.7)
	자녀의 수입	3(1.2)
	이웃의 도움	8(3.3)
	이자수입	4(1.7)
교우, 종교단체도움	14(5.8)	
기타	13(5.4)	
부담이 되는 생활비	사교육비	110(31.7)
	주거비	68(19.6)
	공교육비	59(17.0)
	대출금이자	40(11.7)
	식료품비	33(9.5)
	공과금	22(6.3)
	의료비	6(1.7)
기타	9(2.6)	

〈부록 2〉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국가 경제 및 가정 경제 상황

특 성	집 단	빈도(%)
IMF 이후 전반적인 생활변화	많이 어려워졌다	173(50.3)
	조금 어려워졌다	98(28.5)
	변화없다	56(16.3)
	조금 나아졌다	10(2.9)
	많이 나아졌다	7(2.0)
현재 경제 수준에 대한 지각	IMF이전으로 회복되는 것 같다	7(2.5)
	여전히 어려운 것 같다	84(29.8)
	부자와 빈자간 격차가 커지는 것 같다	190(67.4)
	기타	1(0.4)
IMF 이후 구체적인 생활변화 (복수 응답 가능)	생활수준이 나빠짐	191(26.7)
	외식이 줄어들음	119(16.6)
	야외 소풍이 줄어들음	95(13.3)
	집의 규모 줄임	57(8.0)
	경제적 이유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됨	8(1.1)
	자녀의 사교육 중단	139(19.5)
	자녀의 진학포기	3(0.4)
	부업시작	99(13.8)
	기타	4(0.6)